

“해수면 상승 재앙...뉴욕·런던 다 위험”

유엔총장 ‘기후난민’ 경고
“각 대륙 대도시 충격 직면”
“극심한 물·땅 쟁탈전 우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미칠 파멸적 영향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중국, 인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모두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륙에 있는 대도시들이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코펜하겐, 상하이, 뭌바이, 방콕, 자카르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카이로 등이 취약한 대도시로 거명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저지대 해안에 사는 9억 명 정도에게 위험이 극심하다”며 “이는 지구에 사는 사람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때문에 거대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 난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도 거론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런 모든 사태의 결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저지대 공동체나 나라 전체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인구가 이동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탈출이 빚어질 것”이라며 “담수, 땅 등 자원을 둘러싼 전례 없이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수면 상승을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난민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날 경고는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구 해수면은 온난화로 남북극이나 고지대 빙하가 바다로 녹아들면서 점점 더 빨리 높아지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해수면은 지난 1만1000년을 되돌아볼 때 최근 100년 동안 가장 빨리 상승했다.
패트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해수면 상승은 장기적으로 경제, 생계, 정착지, 보건, 복지, 식량, 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변화 재앙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시된 목표는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과 대비해 섭씨 1.5도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이행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해수면 상승 억제는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탄식도 쏟아지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온난화가 기적적으로 1.5도까지 억제되더라도 2100년까지 해수면이 50cm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추산치다.
WMO는 온도 상승폭이 1.5도로 억제되더라도 해수면이 향후 2000년 동안 2~3m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작년 10월 발간한 보고서 ‘온실가스 배출 격차’에서 현재로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경로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금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에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은 섭씨 2.8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약속이 모조리 시행되더라도 상승폭은 2.4~2.6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 연례 ‘여성 추모 행진’ 14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32회 ‘여성 추모 행진’이 열리고 있다. 1992년 1월 한 여성이 이스트사이드의 파월 거리에서 살해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이 행진은 매년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이 지역에서 살해되거나 실종된 여성들을 추모기 위해 개최된다. /연합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항공기 집결”

서방 정보당국 공중전 임박 관측
“지상전 고갈 푸틴, 공중전 전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제트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집결시키고 있는 사실이 서방 측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공중전’ 위주로 전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공습을 곧 개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공 자산과 포병 탄약을 긴급히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UDCG) 회의에서도 이를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

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그는 더 많은 전쟁, 새로운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대공습 임박’ 징후를 일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여운을 남겼다.
그는 러시아가 공습을 위해 공중 전력을 동원하는 징후가 있는지 묻는 말에 “현재 그런 것은 목격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러시아가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동맹국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에 대비할 시간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구체적인 필요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 지상군은 상당히 고갈된 상태여서, 러시아가 싸움을 공중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조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공습을 이겨내려면 가능한 한 많은 방공 능력과 탄약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태국, 외국 관광객에 6월부터 ‘입국비’ 걷는다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오는 6월부터 ‘입국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바트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1만1천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바트(5600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결정됐다.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약 39억바트(1465억 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맛 맞차깃쁘라칸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입국비 징수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왔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연합뉴스

책 불태워 체온 유지하는 튀르키예 주민들



튀르키예 남동부 하타이의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14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책을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반유대주의 발언 미주인권위원장 지명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권 분야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아이비리그 출신 교수의 미주인권위원회(IACHR) 위원장 지명을 철회했다. 반유대주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논란의 당사자는 제임스 카발라로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다. 대학 인권연합의 창립자이자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자, 스탠퍼드와 하버드, 예일 등에서 법학을 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카발라로 교수를 IACHR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후 중동 및 유대계 문제를 다루는 매체 알제마이너에서 카발라로 교수의 과거 반유대주

의 트윗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그가 과거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 대표가 친유대주의 그룹의 지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구입했고, 조종당했다”고 비판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카발라로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상당수 트윗을 삭제했지만 철회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지명 당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면서 “그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는 최소한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